

바람과 은하수와 햇별과 땅이 전하는 미미한 순간의 노래

글. 유비호 (2014년 9월 14일 .광주)

(기타 반주하며 아래 바람 분위기를 입숨으로 성격 묘사할 것)

휘~ 휘~ 휘휘~ 휘~

- 멀리산너머고여있는바람
- 산정상을넘는바람
- 급격히 산비탈을 내려오는 바람
- 소나무 숲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풀숲을 달리는 바람
- 버드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
- 농가와 농부를 지나치는 바람
- 보리밭을 지나치는 바람
- 도시에 진입하여 다층 건물을 지나는 바람
- 골목길을 지나치는 바람
- 차도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광장에 다다르어 광장을 맴도는 바람
- 광장의 중심. 분수대에 이르른 바람

별하나
별둘
별넷
별일곱
별아홉
별열
별 열열백백
별 백백천천
별 억억억억 그리고 무수한 별들 별들 별들

모든 이의 순간을 기억하는 우주의 작디작은 알갱이들
미지의 어둠 속 어디론가 쏜살같이 돌진하는

이미 그곳에 있어야만 할 자리에 매섭게 이동하는
이미 있었던 곳으로 순간 사라지는 것들

밤하늘의 깨알들은 이미 사라진 이들의
바람을 간직한 채
늘 그곳에서 빛을 발산한다

그리고 순간(정적)
이윽고 바람은 광장을 휘감아 돌아
다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되었던
산 너머로 순간 되돌아간다

- 멀리산너머고여있는바람
- 산정상을넘는바람
- 급격히 산비탈을 내려오는 바람
- 소나무 숲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풀숲을 달리는 바람
- 버드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
- 농가와 농부를 지나치는 바람
- 보리밭을 지나치는 바람
- 도시에 진입하여 다층 건물을 지나는 바람
- 골목길을 지나치는 바람
- 차도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광장에 다다르어 광장을 맴도는 바람
- 광장의 중심. 분수대에 이르른 바람

어떤 소리도 잊지 않았던
어떤빛도있지않았던
영겁의 어둠에서

숨조차 쉴 수없었던
온기조차 느낄 수 없었던
죽음에서

너는 한결같이 품었었지
늘 그러하듯이

그리고 순간(정적)
이윽고 바람은 광장을 휘감아 돌아
다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되었던
산 너머로 순간 되돌아간다

- 멀리산너머고여있는바람
- 산정상을넘는바람
- 급격히 산비탈을 내려오는 바람
- 소나무 숲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풀숲을 달리는 바람
- 버드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
- 농가와 농부를 지나치는 바람
- 보리밭을 지나치는 바람
- 도시에 진입하여 다층 건물을 지나는 바람
- 골목길을 지나치는 바람
- 차도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광장에 다다르어 광장을 맴도는 바람
- 광장의 중심. 분수대에 이르른 바람

이곳 위에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
모두는 빛
생명은 기적

자유로움은
듬직하게 없는 듯 늘그 자리에서
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낸다

그리고 순간(정적)
이윽고 바람은 광장을 휘감아 돌아
다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되었던
산 너머로 순간 되돌아간다

- 멀리산너머고여있는바람
- 산정상을넘는바람
- 급격히 산비탈을 내려오는 바람

- 소나무 숲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풀숲을 달리는 바람
- 버드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
- 농가와 농부를 지나치는 바람
- 보리밭을 지나치는 바람
- 도시에 진입하여 다층 건물을 지나는 바람
- 골목길을 지나치는 바람
- 차도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달리는 바람
- 광장에 다다르어 광장을 맴도는 바람
- 광장의 중심. 분수대에 이르른 바람

그리고 순간(정적)
바람은 광장을 휘감아 돌아
최초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

(기타 반주하며 아래 바람 분위기를 입숨으로 성격 묘사할 것)
휘~ 휘~ 휘휘~ 휘~